

任允摯堂의 送序文 『拜送仲氏南歸序』에 관한 연구*

A Study of Im Yunjidang's Preface to Parting "Baesongjoongshinamguiseo"

강 순 애 (Kang, Soon-Ae)**

◁ 목 차 ▷

1. 서론	3. 「배송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의 분석
2. 임윤지당(任允摯堂)의 생애와 학문	3.1 서지적 분석
2.1 임윤지당의 생애	3.2 내용 분석
2.2 임윤지당의 학문	4. 결론
	<참고문헌>

< 초 록 >

이 글은 새로 발견된 임윤지당(任允摯堂)의 송서문(送序文)인 『배송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를 대상으로 임윤당의 생애와 학문 및 『배송중씨남귀서』의 서지적·내용적 측면을 연구한 것이다.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은 조선 영·정조의 여류 성리학자로, 학문의 연원은 조선 후기 율곡계(栗谷系) 기호학과(畿湖學派)의 주기파(主氣派)이며, 스승은 오빠인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이다. 임윤지당의 문집은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2권 1책이 남아 있다. 이 필첩은 임윤지당이 둘째 오빠 임성주를 위해 쓴 송서문(送序文)으로 그녀의 새로운 문학적 형식이 담토될 수 있는 글이며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에 수록되지 않았다. 이 필첩은 임윤지당이 오빠인 임성주가 정조 6년(1782)부터 정조 10년(1786)까지 공주 녹문으로부터 원주의 산호(山湖)로 옮겨 살다가 떠날 때 이별의 슬픔을 담아 서술한 송서문이다. 이 글은 오빠가 떠나던 정조 10년(1786)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며 본문에 빠진 글자가 8자나 되는 것으로 보아 임성주에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임윤지당 자필의 수고본이며 서체는 안진경(顔眞卿)의 서체(書體)에 저수량(諸遂良)과 우세남(虞世南)의 필의가 깃든 단아(端雅)하고 해정(楷正)한 글씨이다. 이 글은 내용전개상 7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임윤지당은 임성주가 정조 6년(1782)부터 정조 10년(1786)까지 공주 녹문으로부터 원주의 산호(山湖)로 옮겨 살았던 내용을 골격으로 하여 오빠를 학문의 스승으로 사모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을 잘 나타냈으며, 마지막에는 세 가지 소원을 결론

* 본 연구는 2014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본 연구는 2014년도 춘계 한국서지학회 학술발표회(2014. 5. 16)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4년 5월 22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0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에 넣어 자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기록이다. 이 연구는 향후 민간기록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 국어학계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임윤지당, 자필 송서문(送序文), 『배송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
영·정조의 여류 성리학자,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ABSTRACT>

This paper studies Im Yunjidang's newly-discovered preface to parting "Baesongjoongshinamguiseo" by looking over the life and academic works of Im Yunjidang and examining the bibliography and content of "Baesongjoongshinamguiseo" Im Yunjidang(任允摯堂, 1721-1793) was a female Neo-Confucian scholar in Yeongjo's and Jeongjo's reign of Joseon, whose academic origins lay in the late Joseon Yulgok faction's branch of semiotics of cosmo-ontology, and whose teacher was her older brother Nokmun Im Seongju. The only remaining work by Im Yunjidang is a book in two volumes called the *Yunjidangyugo*(允摯堂遺稿) which means "Posthumous Works of Yunjidang." "Baesongjoongshinamguiseo" is a preface to parting written for her second older brother Im Seongju, a writing not included in *Yunjidangyugo* which enables modern-day scholars to study her new literary form. The preface to parting describes the sadness of parting when her older brother Im Seongju left Sanho in Wonju, the home to which he relocated from Nokmun, Gongju from the sixth to ten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 (1782-1786). The writing is thought to have been composed in the tenth year of Jeongjo's reign when her brother left, but seeing from the eight missing characters in the text, it is unknown whether it was delivered to Im Seongju. Im Yunjidang wrote it in her own hand while incorporating An Jin-kyeong, Jeo Suryang and Woo Sae-nam's penmanship, producing clear and elegant writing. The writing can be divided into 7 paragraphs according to the content development. The framework of Im Yunjidang's record is built on how Im Seongju relocated from Nokmun, Gongju to live in Sanho, Wonju from the sixth to tenth year of Jeongjo's reign. It describes the joy of life that comes from loving and admiring him as her academic teacher and shows well the pain of parting, adding three wishes in the conclusion to specify her longings. This study will be used in the basic future studies of private records as well as in those of bibliography, record management, history and Korean language.

Key words: Im Yunjidang, Hand-written preface to parting,
"Baesongjoongshinamguiseo," Women Neo-Confucian scholars in
the reign of Yeongjo and Jeongjo, *Yunjidangyugo*

1. 서론

임윤지당(任允摯堂)은 조선조 후기의 여류 성리학자이다. 남성들의 아성(牙城)인 유학의 세계에 도전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조선조 6대 성리학자로 불리는 오빠 임성주(任聖周)의 주기학과 학맥을 이어 여성철학자의 한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문집인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2권 1책뿐이다. 문집에 실린 것 이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최근에 발굴되는 자료 중에는 더러 문집에 들어 있지 않은 것도 많으며 글의 내용이 기존의 문헌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어 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인사동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임윤지당(任允摯堂)의 송서문(送序文)인 「배송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글은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에 들어 있지 않다. 누가 비장했던 것인지, 어떻게 인사동으로 흘러들어 고서점에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여하튼 그녀의 필묵은 내게 돌아왔다. 어떤 인연이라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서간의 주인공인 임윤지당은 내 시택인 풍천임씨 집안의 선조이다. 그 주인공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사실은 기묘한 인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 필첩은 족자로 만들어서 권자본 형식으로 말아서 오동나무 상자에 들어 있다. 임윤지당이 둘째 오빠인 임성주가 원주에 5년 살다가 다시 공주의 녹문으로 이사 가게 되자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송서문이다. 이 필첩은 임윤지당의 단아한 글씨체도 일품이지만 유려한 문체로 묘사된 문체의 정수가 담겨 있다. 임윤지당의 성리학적 글은 문집을 통해 접할 수 있으나 문학적인 글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어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임윤지당의 연구는 『윤지당유고』에 근거하여 생애와 평전, 철학사상 및 성리학 등에 집중되어 왔고, 최근에 이루어지는 연구도 대부분 기존 자료에 의거하고 있을 뿐이다.

필자는 새로 발견된 서간 「배송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를 중심으로 임

윤지당(任允摯堂)의 생애와 학문, 『배송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의 서지적 분석 및 내용 분석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민간기록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 국어학계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2. 임윤지당(任允摯堂)의 생애와 학문

2.1 임윤지당의 생애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의 본관은 풍천이고 아버지는 함흥관관을 지낸 노은(老隱) 임적(任適, 1685-1728)이며 어머니는 파평윤씨 윤부(尹扶)의 딸이다. 조선후기 대성리학자였던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 1711-1788)의 여동생이며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의 누님이다.

윤지당이란 당호(堂號)는 둘째 오빠인 임성주가 지어준 것인데,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부록 『유사(遺事)』에 의하면, “주자의 ‘태임(太任)과 태사(太姒)를 존경하노라[允莘摯]’ 하신 말에서 따온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은 실상 태임(太任)의 친정이었던 ‘지중씨(摯仲氏: 任氏)의 지(摯)’라는 글자를 택하신 뜻이다(允摯堂 卽孺人少時 我仲氏所命也 蓋取朱子允摯之語 而其意則實兼摯仲之摯也.)”라고 하였다.¹⁾

임윤지당은 경종 원년(1721) 부친이 양성(陽城, 현재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현감으로 부임하던 해에 태어났다. 다만 임적이 그때까지 서울에서 벼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태어났는지 양성 관아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다. 영조 원년(1725)에 부친이 함흥관관으로 전근하여 그 곳에 살았다. 영조 3년(1727)에 부친의 사직으로 서울의 송현방(松峴坊)으로 이사하였다가 이듬해인 영조 4년(1728)에 부친이 작고하였다. 영조 5년(1729)에 청주의 옥화(玉華)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

1) 任允摯堂, 조선시대사학회 역주, 『국역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원주시, 2001), 244-246.

고, 그곳에서 둘째 오빠인 임성주에게서 『효경(孝經)』, 『열녀전(烈女傳)』, 『소학(小學)』, 및 사서(四書)인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등의 유교경전과 역사책을 공부하였다. 영조 13년(1737)에 임윤지당 일가는 조상들의 선영이 있던 여주(驪州)로 이사하였고, 19세가 되던 영조 15년(1739)에 원주로 시집을 갔다. 그녀의 가족은 영조 21년(1745)에 서울로 이사하였다가 얼마 후에 친정어머니와 큰 오빠인 임명주(任命周)는 공주군 우정면(牛井面) 지계(芝溪)로 옮겨 정착하였다. 그 후로는 이곳이 임윤지당의 친정이 되었다. 임성주는 공주에서 50리 떨어진 녹동(鹿洞: 鹿門)에 살게 되었다.²⁾

임윤지당은 19세인 영조 15년(1739)에 원주의 명문가 선비 신광유(申光裕, 1722-1747)에게 시집갔다. 임윤지당은 정조 17년(1793) 작고할 때까지 55년간 원협(原峽) 혹은 산호(山湖)라는 곳에 살았는데 현재 정확히 어느 마을인지는 알 수 없다. 그의 남편 신광유는 평산 신씨(平山申氏) 신승겸(申崇謙)의 후손으로 원주(原州) 입향조(入鄉祖)인 6대조 신상(申尙) 후예이다. 신광유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높이 한 집안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결혼한 지 8년 후인 영조 23년(1747)에 남편 신광유가 죽었고, 그녀는 남편이 큰 아버지 덕인 신계(申啓)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가(申普)와 양가(申啓)의 두 시어머니를 모셨고, 시동생인 신광우(申光祐, 신광조(申光祖) 가족과 함께 살았다.³⁾

그녀는 40세가 넘어서 남편의 동생인 신광우(申光祐)의 아들 신재준(申在竣, 1760-1787)을 양자로 들어서 잠시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임윤지당의 말년은 불행하였다. 친정의 모친과 7남매들이 차례로 죽었다. 양자인 신재준이 그녀의 나이 67세이던 정조 11년(1787)에 죽었고, 이듬해인 정조 12년(1788)에는 학문의 스승이었던 둘째오빠 녹문 임성주가 작고하였다. 외로운 노후를 보내던 그녀도 73세이던 정조 17년(1793)에 세상을 떠났다.⁴⁾

2) 이영춘, “국역 윤지당유고(允攀堂遺稿) 해제(解題),” 『국역 윤지당유고(允攀堂遺稿)』 (원주시, 2001), 2-3.

3) 오영교, “조선시대 門中의 女性教育과 任允攀堂,” 『역사와 실학』 17·18(2000), 276-279.

4) 김미란, “조선후기 여류문학의 실학적 특질 - 특히 18세기를 중심으로 -,” 『동방학지』 84(1994), 182.

2.2 임윤지당의 학문

임윤지당의 학문의 바탕은 조선조 후기 율곡계(栗谷系)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주기파(主氣派) 성리학에 두고 있다. 그 연원은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부록 「유사(遺事)」에 의하면, “윤지당은 고조부이신 평안감사 금시당(今時堂: 任義伯)께서는 사계(沙溪: 金長生, 1548-1631) 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마음(心)’을 스승으로 삼으라는 가르침을 들으셨다. 선친이신 함흥관판 노은공(老隱公: 任適)께서는 백부(伯父)이신 참봉공(參奉公: 任選)과 함께 황강(黃江: 權尙夏, 1641-1721)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여 ‘정직(直)’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셨다. 둘째 형님 성천부사 녹문공(鹿門公: 任聖周)은 도암(陶庵: 李縉, 1680-1746) 선생의 문하에서 ‘도(道)는 잠시도 떠날 수 없다’는 철학을 전수 받으셨고, 누님(允摯堂)은 형님(任聖周)에게서 수학하셨다. 가문에서 전수된 학문 연원이 유구하고 그 영향이 이와 같이 심원하였다(孺人學有所自 我高祖平安監司今時堂公諱義伯 受業沙溪金先生之門 得聞師心之訓 先考咸興判官老隱公諱適 與伯氏參奉公諱選 出入黃江權先生之門 得聞直字之教 仲氏成川府使鹿門公諱聖周 蚤遊陶庵李先生之門 得聞道不可離之義 而孺人又受業於仲氏 蓋其家庭之間 淵源之遠播染之深如彼)”라고 하였다.⁵⁾ 이 유사를 보면 임윤지당의 학문 연원은 선조로 부터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황강(黃江) 권상하(權尙夏), 도암(陶庵) 이재(李縉)의 학풍이고, 실질적인 스승은 오빠인 녹문 임성주임을 알 수 있다.

녹문 임성주는 도암(陶菴) 이재(李縉)의 문인이다. 임성주는 초기에는 동문이던 박겸재(朴謙齋, 1687-1767), 송역천(宋櫟泉, 1705-1768), 및 삼연학파(三淵學派)의 김미호(金溪湖) 등과 더불어 도암의 학설을 계승하여 인물성동지설(人物性同之說)을 주장했다가 중년에 이르러 구설(舊說)의 오류를 깨닫고 호론(湖論)인 인물성이지설(人物性異之說)로 전환한다. 하지만 성범심동지설(性凡心同之說)은 낙론(洛論)과 일치한다. 따라서 녹문은 호락논쟁의 근원이 이기(異氣)를 이물(二物)로 보기 때문이라 함으로써 이기를 일물(一物)로 보려는 입장에서 자기

5) 任允摯堂, 조선시대사학회 역주, 『국역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원주시, 2001), 241-246.

철학의 체계를 세웠다.⁶⁾ 그는 율곡계를 이은 기호학과인 송시열(宋時烈, 1607-1689), 권상하(權尙夏), 한원진(韓元震, 1682-1750)으로 계승되는 주기파를 발전시켜 기일분수설(氣一分殊說)을 통해 이기(理氣)를 기일원론적(氣一元論的) 관념으로 통일함으로써 조선유학사상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녹문의 주기설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사람들은 동생인 임윤지당(任允摯堂)과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가 있고, 조카인 영서(穎西) 임노(任魯, 1755-1828)와 그의 제자들인 송야(松野) 임익상(任翼常), 약재(樂齋) 김병주(金炳周), 운초(雲樵) 심기택(沈起澤), 하은(河隱) 이동재(李東宰)가 있으며, 이광정(李光鼎)과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 1811-1876) 등이 있다.⁷⁾

임윤지당의 학문의 세계는 그녀의 문집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녀는 평생에 연구하고 썼던 글을 모아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2권 1책을 남겼다. 초고본은 임윤지당이 직접 작성하였고, 임윤지당이 죽은 3년 후인 정조 20년(1796)에 그녀의 동생인 임정주와 시동생인 신광우(申光祐, 1726-1798)에 의해 임정주가 제작한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윤지당유고』 상권에는 전(傳) 2편(「송씨능상부전(宋氏能相婦傳)」, 「최홍이녀전(崔洪二女傳)」), 논(論) 11편(「논예양(論豫讓)」, 「논보과론(論輔果論)」, 「논미생고결혜(論微生高乞醢)」, 「논안자소락(論顔子所樂)」, 「논자로(論子路)」, 「논가의(論賈誼)」, 「논이릉(論李陵)」, 「논온교절거(論溫嶠絕裾)」, 「논사마온공(論司馬溫公)」, 「논왕안석(論王安石)」, 「논악비봉조반사(論岳飛奉詔班師)」), 발(跋) 2편(「속서선부자소사시경후(續書先夫子所寫詩經後)」, 「속서선부자소사초사후(續書先夫子所寫楚辭後)」), 설(說) 6편(「이기심성설(理氣心性說)」, 「인심도심사단칠정설(人心道心四端七情說)」, 「예악설(禮樂說)」, 「극기복례위인설(克己復禮爲仁說)」, 「치란재득인설(治亂在得人說)」, 「오도일관설(吾道一貫說)」)으로 총 21편이다.

『윤지당유고』 하권에는 잠(箴) 4편(「심잠(心箴)」, 「인잠(忍箴)」, 「시습잠(時習

6) 裴宗鎬, 『韓國儒學史』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90), 241.

7) 鄭炳連, “녹문 임성주의 생애와 그 학술 경향,” 『퇴계학보』 101권(1999), 123.

箴」, 『근학잡사대질임별시(勤學箴謝大侄臨別詩)』, 명(銘) 3편(『경명(鏡銘)』, 『비검명(匕劍銘)』, 『척형명(尺衡銘)』), 찬(贊) 1편(『안자호학찬(顔子好學贊)』), 제문(祭文) 3편(『제백씨정언공문(祭伯氏正言公文)』, 『제중씨록문선생문(祭仲氏鹿門先生文)』, 『제망아재준문(祭亡兒在竣文)』), 인(引) 1편(『문장등송계상시단인(文章騰送溪上時短引)』), 경의(經義) 2편(『대학(大學)』 六條, 『중용(中庸)』 二十七條)의 14편으로 하권은 14편이다. 상·하권에 총 35편이 수록되었다. 부록에 『언행록(言行錄)』 19조, 『유사(遺事)』 16조, 『발문(跋文)』 2편(申光祐, 任靖周)이 실려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에는 서문은 없고, 문집 서두에 여성의 전기 2편을 수록하였는데, 송씨택 부인과 최씨·홍씨 모녀의 여성전이다. 송씨택 부인은 조선 후기 유학자 운평(雲平) 송능상(宋能相)의 첫 부인이자 한계진(韓啓震)의 딸로 비범한 재주와 인품을 지녔으나 단명한 청주한씨(淸州韓氏)의 전기이다. 최씨·홍씨 모녀는 경상도 삼가현(三嘉縣)의 무사 홍아무개의 부인과 딸인데 남편이 죽자 그 원수를 갚아 정절과 효성의 상징으로 다룬 여성전기이다.

인물론의 11편은 전국시대의 의 진(晉)의 자객이었던 예양(豫讓), 춘추전국시대의 진(晉)의 대부(大夫)였던 보과(輔果), 춘추전국시대 노(魯)의 미생고(微生高),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 B.C. 521-B.C. 490), 자로(子路, B.C. 543-B.C. 480), 전한시대 문인이었던 가의(賈誼, B.C. 200- B.C. 168), 전한시대의 무장 이릉(李陵, ?-B.C. 74), 육조시대 진(晉)의 공신인 온교(溫嶠), 북송의 정치가이자 대학자인 사마온공(司馬溫公, 1019-1086), 송의 개혁정치가인 왕안석(王安石, 1021-1086), 남송의 장군인 악비(岳飛, 1103-1141)의 공과(功過)의 포핍(褒貶)에 대한 논평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발문 2편은 남편 신광유(申光裕)가 필사하다가 마치지 못한 『시경(詩經)』과 『초사(楚辭)』를 이어서 필사를 마치고 나서 붙인 후기이며 남편의 글을 마쳐서 후대에 남기려고 한 뜻이 들어 있다.

설(說) 6편은 성리학에 대한 임윤지당의 학문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글이다.

이중 「이기심성설(理氣心性說)」과 사단칠정인심도심설(四端七情人心道心說)」에는 임성주 사상의 근저인 ‘이기동실(理氣同實)’과 ‘심성일치(心性一致)’ 사고에 기반을 두고 이기심성(理氣心性)에 대한 이론이나 윤리적 수양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 들어 있다. 이(理)와 기(氣)는 하나이며 이(理)가 인간의 마음속에 타재한 모습인 성(性), 기(氣)의 역동성으로 인해 현상적인 심리작용을 일으키는 심(心)도 실제로는 하나의 존재로 보았다. 즉, 인간의 심(心)을 이루는 기(氣)가 이(理)의 도덕성을 그대로 발현시킬 수 있는 있는 순수한 존재라고 생각했다.⁸⁾

잠(箴) 4편과 명(銘) 3편은 스스로의 행실을 반성하고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 지은 것들이다. 잠 4편은 자신의 수행의 지침서로 독송하던 「심잠(心箴)」, 만년에 양자인 신재준과 친정의 형제들이 죽자 마음의 평정을 위해 지은 「인잠(忍箴)」, 학문과 도덕적 수행을 위한 「시습잠(時習箴)」, 친정 큰 조카인 임조(任照)에 준 「근학잠사대질임별시(勤學箴謝大侄臨別詩)」가 있다. 명 3편은 도덕적 수행과 결단력을 위해 지은 「경명(鏡銘)」, 「비검명(匕劍銘)」, 「척형명(尺衡銘)」이 있다.

찬(贊) 1편인 「안자호학찬(顏子好學贊)」은 임윤지당의 글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이다. 임윤지당은 범인도 성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지만 성인과 범인 사이에 위치한 안자를 통해 더 구체화시키고 하였다. 찬의 내용 중에 “안자가 좀 더 살았으면 주공 같이 되었으리. … 백세토록 스승으로 추앙하리(如假其壽 孔周其齊 … 百世師仰).” 라고 묘사하였다.⁹⁾ 이는 안희의 학문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도덕적 실천에 대해 사모하는 모습을 자신에게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문(祭文) 3편은 다른 글과 다르게 임윤지당의 문학적인 감성이 잘 드러나는 글들이다. 「제백씨정언공문(祭伯氏正言公文)」은 그의 큰 오빠인 임명주(任命周)의 영전에 올린 제문으로 임명주의 인품, 관직 생활과 유배, 가족들 간의 사랑을 애달프게 묘사하고 있다. 「제중씨록문선생문(祭仲氏鹿門先生文)」 둘째 오빠인 임성주(任聖周)의 영전에 올린 제문이다. 임윤지당 말년의 불우한 처지와 가족관계, 오빠이자 학문의 스승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존경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8) 김현, “성리학적 가치관의 확산과 여성,” 『민족문화연구』 41(2004), 470-472.

9) 任允擘堂, 조선시대사학회 역주, 『국역 윤지당유고(允擘堂遺稿)』 (원주시, 2001), 180-181.

이 글의 일부는 다음 장에서 분석하는 「배송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제망아재준문(祭亡兒在竣文)」은 양아들인 신재준(申在竣)이 죽고 삼년상이 끝나 가던 정조 13년(1789) 삭망제에 올린 것이다. 양자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만년(晩年)의 절망적인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인(引) 1편 「문장등송계상시단인(文章贈送溪上時短引)」은 임윤지당이 자신의 문집을 편찬하기 위하여 원고 40편을 베껴 임정주에게 보낼 때 함께 써 보낸 것으로 실제로는 문집의 서문의 서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경의(經義) 2편은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이다. 「대학(大學)」 경의는 경문(經文) 1장과 전문(傳文) 5장에 대한 해석이고, 오빠 임성주와의 토론도 들어 있어 의미 있는 자료이다. 「중용(中庸)」 경의는 「중용(中庸)」 33장 중 27장의 본문들 중에서 의미 있는 대목에 대해서 토론한 것인데, 임윤지당은 이를 통해 심론(心論)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실천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수양의 공효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여성 자신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특히 태임(太任)과 태사(太姒)와 같은 성인상을 닮고자 하는 자세를 일상 속에서 구체화시켜 나갔다. 그녀는 여성의 직분을 중시하되, 그 직분 자체를 궁극의 목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구별이 없는 궁극의 도덕원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⁰⁾ 임윤지당의 이러한 논지는 여성은 누구나 태임과 태사되기를 다짐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지만, 성인과 범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하는 일이 다른 데 있지 그 본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을 구구히 강조했으나 담론의 핵심은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여성상의 변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통적인 여성적인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

10) 김현, “성리학적 가치관의 확산과 여성,” 『민족문화연구』 41(2004), 470-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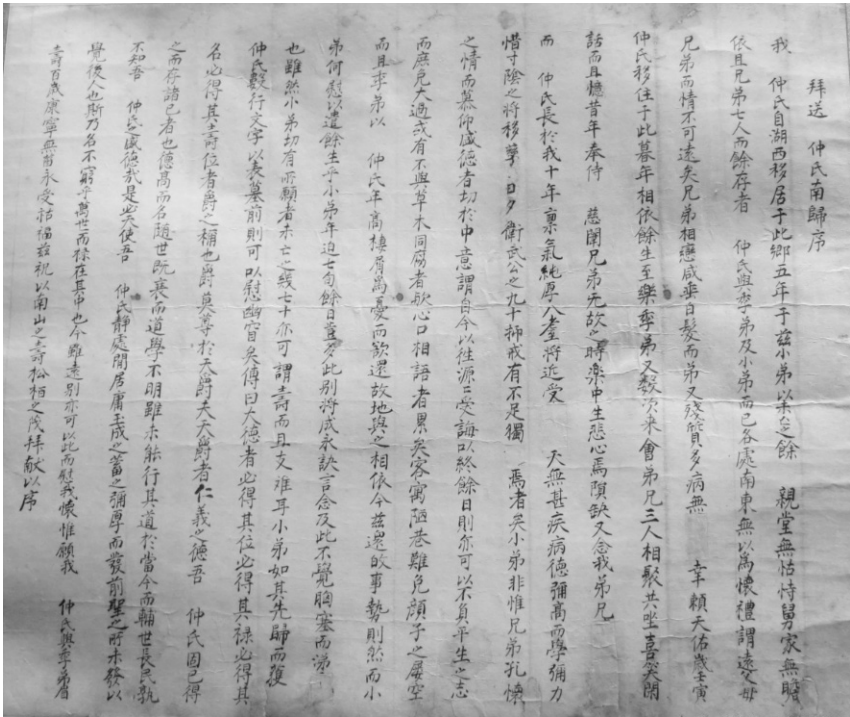
11) 이혜순, 『조선 후기 여성 지성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103-105.

3. 「배송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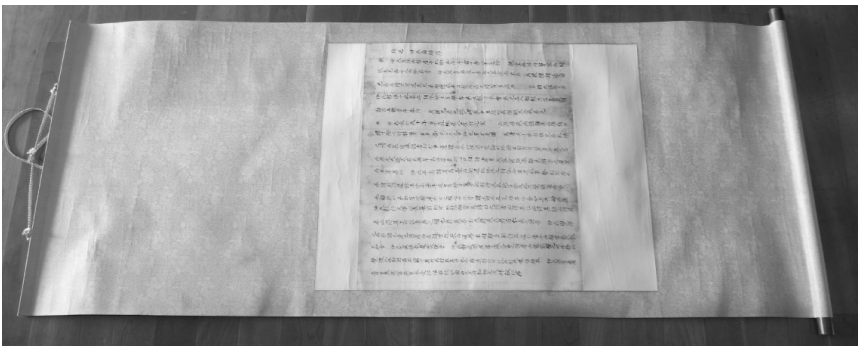
「배송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는 임윤지당이 둘째 오빠 임성주를 위해 쓴 송서문(送序文)으로 문집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임윤지당의 새로운 문학적 형식 탐토할 수 있는 글이다. 이 송서문의 서지적 분석 및 내용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3.1 서지적 분석

이 필첩은 임윤지당이 오빠인 임성주가 정조 6년(1782)부터 정조 10년(1786)까지 공주 녹문으로부터 원주의 산호(山湖)로 옮겨 살다가 떠날 때 이별의 슬픔을 담아 서술한 송서문이다. 이 글은 오빠가 떠나던 정조 10년(1786)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며 본문에 빠진 글자가 8자나 되는 것으로 보아 임성주에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임윤지당 자필의 수고본이며 족자로 만들어져 권자본 형식으로 말아서 오동나무 상자에 들어 있다. 필첩의 원래 크기는 40.3cm(세로) × 48cm(가로)이다(<그림 1> 참조). 족자는 연한 푸른빛으로 물을 들인 표지에 필첩을 붙이고 권축을 달았는데, 족자의 크기는 144cm(세로) × 57.5cm(가로)이고, 축의 길이는 63.5cm(가로)이다(<그림 2> 참조). 필첩이 보관된 나무상자는 오동나무이고 상자의 크기는 66.3cm(세로) × 8.7cm(가로) × 8.4cm(높이)이다(<그림 3> 참조). 상자전면에는 ‘允摯堂 拜送仲氏南歸序’라고 필묵으로 써넣었는데 소장자가 써넣은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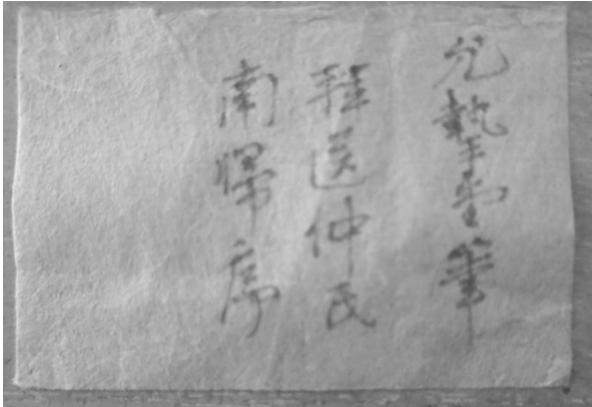
<그림 1> 「배승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 원문



<그림 2> 「배승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 족자



<그림 3> 「배송증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 오동나무 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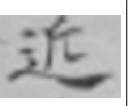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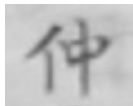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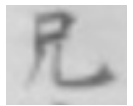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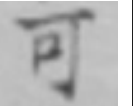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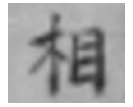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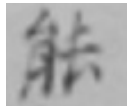
<그림 4> 「배송증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 오동나무 상자 옆면 제목

필첩 전체는 19줄인데 제목 1줄, 본문 18줄이다. 전체 글자 수는 제목 7자, 본문 585자이고, 빠진 글자가 8자이다. 둘째 오빠를 지칭하는 ‘증씨(仲氏)’, 어머니를 지칭하는 ‘친당(親堂)’, ‘자위(慈闈)’의 앞에는 존경을 표시하고 위해 공격(空格)을 두고 있다.

임윤지당의 송서문은 자신이 정서한 정서본(淨書本)이다. 이 글씨의 특징은 단아(端雅)하고 필법에 상응하여 쓰러고 애쓴 흔적이 보이며 여성의 글씨로 보기에 기운이 넘치고 해정(楷正)하다. ‘之’자와 ‘送’과 ‘近’의 책바침 변, ‘家’와 ‘發’의 형태는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안진경(顔眞卿)의 서체(書體)의 비후(肥厚)함과 주경(遒勁)함을 보이고 있다. ‘仲’, ‘兄’, ‘弟’, ‘可’, ‘中’ 등에 저수량(諸

遂良)의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있는 서체의 특징이 보이고, ‘又’, ‘相’, ‘依’, ‘住’, ‘移’는 우세남(虞世南)의 완미(完美)한 서체와 비슷하며 가늘고 부드럽다. 서체는 대체로 당나라 해서(楷書) 중에서도 안진경, 저수량, 우세남체를 섭렵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혹 이체자, 변획의 줄임, 멋부림 등이 ‘畋’(歸와 同字), ‘能’(能자의 변획), ‘南’(南자의 변획), ‘坐’(坐의 멋부림), ‘質’(質의 멋부림)에 나타나는데 이는 글씨의 멋을 아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것이다. 여성글씨로는 공력과 필력이 대단하다. 이들 글씨체의 특징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임윤지당의 글씨체 특징의 사례

안진경체의 예					
저수량체의 예					
우세남체의 예					
이체자, 변획, 멋부림의 예					

3.2 내용 분석

임윤지당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을 남기는 데 있어서도 매우 절제하였다. 송서류의 글은 그녀의 문집에 없다. 『배송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는 오빠 임성주를 보내면서 이별을 앞두고 송서문의 형식에 맞게 잘 쓰여진 글이다. 하지만, 이 글이 그녀의 문집에 왜 수록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다.

송서문과 같은 의미의 송별시는 당(唐)나라 초기에 친척이나 친구와 이별할 때 연회를 베풀어 전별(餞別)하면서 술을 마시고 시를 적어 주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헤어짐의 아쉬움을 표백하는 송별시는 화자(話者)의 위치에 따라 송별시(送別詩)와 유별시(留別詩)로 나눌 수 있다. 즉 송별시는 화자가 길을 떠나는 사람을 전송하는 시이고, 유별시는 떠나는 사람이 남긴 시이다.¹²⁾ 이러한 송별시 대신에 산문 형식으로 유행한 것이 송서문이다.

조선조의 송서문은 사행(使行)이나 외직으로의 부임, 그리고 낙향 등 떠나가는 지인들을 보내면서 전별연을 펼치고 또 그 때 시를 짓거나 글을 지어주는 것은 문인들에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나 사행이나 외직으로의 부임과는 달리 낙향하는 지인(知人)을 보낼 경우는 앞의 그것보다 훨씬 참담하고 슬픈 법이다. 이별이 주는 그 자체도 슬플 터인데 현실 세계에 인정받지 못해 낙향하는 경우라면 그 애통한 심정은 떠나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한 가지일 것이다.¹³⁾

이러한 송서문의 문체는 의론을 할 수도 있고 서사를 할 수도 있고 서정도 할 수 있어 유동성이 매우 강한 문체이다. 곧 형식이든 내용이든 구애됨 없이 다른 문체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이다.¹⁴⁾

임윤지당의 『배송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는 송서문의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내용의 전개 상 전문에 토를 붙여 <표 2>로 소개하고, 해석의 전문을 <표 3>으로 제시하며, 임의로 <표 4>와 같이 7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 이동재, “送別과 만남, 국가 행사의 宴會空間 濟川亭,” 『한문고전연구』 25(2012), 4.

13) 서정화, “박제가의 제문 및 송서 연구,” 『어문논집』 51(2005), 167.

14) 서정화, “박제가의 제문 및 송서 연구,” 『어문논집』 51(2005), 174.

<표 2> 「배송증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 전문 및 토

拜送 仲氏南歸序

我 仲氏 自湖西로 移居于此鄉이 五年于茲라// 小弟 以未亡之餘에 親堂無怙恃하고 舅家無瞻
 依라 且兄弟七人에 而餘存者 仲氏與季弟及小弟而已니 各處南東하야 無以爲懷라 禮謂遠父
 母兄弟나 而情不可遠矣라 兄弟相戀이나 咸垂白髮而弟又殘質로 多病無■이러니// 幸賴天佑
 하야 歲壬寅에 仲氏移住于此하야 暮年相依하니 餘生至樂이라 季弟 又數次來會하야 弟兄三人
 이 相聚共坐하야 喜笑閑話하고 而且憶昔年奉侍慈闈하며 兄弟無故之時에 樂中生悲하야 心焉
 隕缺하고// 又念我弟兄컨대 ■■■■ 而 仲氏가 長於我十年인데 稟氣純厚하고 八耄將近에
 受■■天하야 無甚疾病하고 德彌高而學彌力하며 惜寸陰之將移하야 孳孳日夕하야 衛武公之
 九十抑戒 有不足獨■焉者矣라// 小弟 非惟兄弟孔懷之情이라 而慕仰盛德者切於中하야 意謂
 自今以往으로 源源受壽하야 以終餘日이면 則亦可以不負平生之志하야 而庶免大過하야 或有
 不與草木同腐者歟인저하며 心口相語者累矣나// 客寓陋巷에 難免顏子之屢空하고 而且季弟
 以 仲氏年高棲屑로 爲憂하야 而欲還故地하야 與之相依하야 今茲還飯하니 事勢則然이나 而小
 弟 何慰以遺餘生乎아 小弟 年迫七旬이니 餘日豈多리오 此別이 將成永訣이라 言念及此에
 不覺胸塞而涕■也라// 雖然이나 小弟 切有所願者하니 未亡之幾七十하니 亦可謂壽오 而且支
 難耳라 小弟 如其先歸하야 而獲仲氏數行文字하야 以表墓前이면 則可以慰幽昏矣라 傳曰 大
 德者는 必得其位하며 必得其祿하며 必得其名하며 必得其壽라하니 位者는 爵之稱也니 爵莫尊
 於天爵이라 夫天爵者는 仁義之德이니 吾 仲氏固已得之하야 而存諸已者也라 德高而名隨하니
 世旣衰하고 而道學不明하야 雖未能行其道於當今이나 以輔世長民에 熟不知吾 仲氏之盛德哉
 아 是必天使吾 仲氏로 靜處閑居하야 庸玉成之하고 蓄之彌厚하야 而發前聖之所未發하야 以
 覺後人也라 斯乃名不窮乎萬世며 而祿在其中也라 今雖遠別이나 亦可以此而慰我懷라 惟願我
 仲氏與季弟 眉壽百歲하며 康寧無菑하야 永受祜福하고 茲祝以南山之壽와 松栢之茂하며 拜獻
 以序하노라//

//: 임의로 나는 단락의 표시임.

<표 3> 「배송증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 해석 전문

둘째 오빠 임성주가 여주 녹문으로 돌아가는데 부치는 글

우리 둘째 오빠 임성주(任聖周: 1711-1788)는 호서(湖西)에서 원주의 산호(山湖)로 옮겨 산
 지가 5년이 되었다// 저 임윤지당은 남편이 죽은 뒤에 친정집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시가예
 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또 형제 7인에 생존하고 있는 이는 둘째 오빠인 임성주(任聖周)와
 막내 남동생인 임정주(任靖周) 및 본인 임윤지당(任允曄堂: 1721-1793) 뿐이니 각각 남동쪽에
 살아서 그리워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예(禮)에 이르기를, (여자가 시집을 가면) 부모형제를

멀리 떠나는 것이나 정으로는 멀리할 수 없는 것이다. 형제가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나 모두 백발이 되었고 저들은 또한 병약한 체질로 병이 많아 건강하지 못했다.// 다행히 하늘의 도움을 받아 임인(壬寅: 정조 6, 1782)에 둘째 오빠인 임성주가 이곳으로 이주하여 늘그막에 서로 의지하니 여생이 지극히 즐겁다. 막내 남동생인 임정주 또한 여러 차례 원주에 와서 형제 3인이 서로 모여 함께 앉아서 즐겁게 이야기하였고 또한 옛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형제가 무고할 때를 추억하니 즐거운 가운데 슬픔이 일어나 마음이 매우 좋질 않았다.// 또 우리 제형을 생각하건대 둘째 오빠 임성주는 나보다 10살이 많은데 기품이 순후(純厚)하고 팔순이 가까운데도 천품을 타고나 질병이 별로 없어 덕은 더욱 높고 학문은 더욱 힘써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아까워하여 밤낮으로 학문에 힘써서 위무공이 95세에 역시를 지어 경계한 것이 <위무공> 혼자만 훌륭하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임성주가 매우 훌륭함을 위무공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저는 형제간에 몹시 생각하는 정뿐만 아니라 둘째 오빠의 기록한 덕을 우러르고 사모하는 것이 마음에 간절하여 생각건대 지금부터 앞으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 남은 시간을 보낸다면 평생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큰 허물을 면하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초목과 함께 아무 의미 없이 썩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마음과 입으로 말한 것이 여러 번이나// 둘째 오빠가 객지에서 누추하게 지냄에 안자(顔子)의 누공(屨空)을 면하기 어렵고 또 막내 남동생이 둘째 형의 연세가 높고 여기저기 옮겨 사는 것을 걱정하여 공주의 녹문으로 돌아가서 더불어 서로 의지하여 살고자 하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일의 형세인즉 그러하나 저는 어떻게 위안을 삼으며 남은 인생을 보낼는지요? 제 나이가 70에 가까우니 남은 날들이 어찌 많으리오. 이 이별이 장차 영결이 될 수도 있는지라 말과 생각이 여기에 이르게 됨에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비록 그러나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으니 미망인으로 70에 가까우니 또한 수(壽)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제가 만일 먼저 저 세상으로 가서 둘째 오빠의 몇 줄의 문자를 얻어서 묘 앞에 표시할 수 있다면 저승에서라도 위로가 될 것이다. 전(傳)에 이르기를, “큰 덕은 반드시 그 지위를 얻고, 반드시 그 녹을 얻으며, 반드시 그 이름을 얻으며 반드시 그 수(오래 사는 것)를 얻는다.” 라고 하였으니, 지위는 벼슬(爵)을 칭하는 것이니, 벼슬은 천작(天爵: 하늘에서 받는 벼슬이라는 뜻으로 존경받을만한 선척적인 덕행)보다 높은 것이 없다. 대개 천작이라는 것은 인의의 덕이니 우리 둘째 오빠는 진실로 이미 인의의 덕을 지녀서 몸에 두셨다. 덕이 높고 명예가 따랐으나 세상은 이미 쇠퇴하고 도학이 밝지 않아서 비록 지금에 그 도를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두고 백성의 스승 노릇을 함에 누가 우리 둘째 오빠의 성덕을 모르겠는가! 이는 반드시 하늘이 우리 둘째 오빠로 하여금 고요한 곳에 조용히 거하게 하여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서 학문의 덕을 쌓음을 더욱 후하게 하여 앞의 성인들이 깨우치지 못한 것을 깨우치게 하여 후인의 귀감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이름이 만세에 없어지지 않으며 녹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멀리 떠나 이별하였으나 또한 이로써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다. 오직 원컨대 둘째 오빠와 막내 남동생이 백세가 되도록 오래살고 강녕하여 재앙이 없으시며 영원히 큰 복을 받으시고 이에 남산의 수와 송백처럼 무성함을 축원하며 절하고 서문을 바치노라.//

//: 임의로 나눈 단락의 표시임.

<표 4> 「배송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의 단락 구성

단락	핵심내용
1) 단락	임성주가 호서에서 원주로 옮겨 산지 5년이 되었음을 밝혔음.
2) 단락	임윤지당이 외로운 자신의 입장을 밝혔음.
3) 단락	정조 6년(1782)에 임성주가 공주 녹문에서 원주의 산호로 옮겨 감을 말함.
4) 단락	임성주의 기품과 학문을 묘사하였음.
5) 단락	임윤지당이 임성주를 형제의 정보다는 학문의 스승으로 사모하고 존경함을 표현하였음.
6) 단락	윤호 임정주가 형인 임성주를 녹문으로 모시고 가려는 것을 서술하였음.
7) 단락	임윤지당의 세 가지 소망을 밝혔음. 첫째, 임윤지당이 오빠 임성주 보다 먼저 죽으면 묘전에 오빠의 글을 받고 싶어 함. 둘째, 임성주의 학문이 더욱 풍성해지고 높아져서 후대의 귀감이 될 것을 바램. 셋째, 임성주와 임정주가 오랫동안 수를 누리기를 축원함.

1) 단락은 임성주가 호서에서 원주로 옮겨 산지 5년이 되었음을 서술하였다. 본문은 “우리 둘째 오빠 임성주(任聖周: 1711-1788)는 호서(湖西)에서 원주의 산호(山湖)로 옮겨 산 지가 5년이 되었다(我 仲氏自湖西移居于此鄉 五年于茲)”이다. 이때 임성주는 정조 6년(1782)부터 정조 10년(1786)까지 공주 녹문으로부터 전 가족이 원주의 산호(山湖)로 옮겨 살았다. 임성주가 이 시기에 원주의 산호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글은 우선 임정주가 쓴 『녹문선생문집부록(鹿門先生文集附錄)』에 실린 「행장(行狀)」에 “정조 6년(1782)에 원주의 산호로 옮겼다가 5년 만에 녹문의 옛집으로 이사 왔다(壬寅春, 舉室入原州之山湖。居五年復返于鹿門舊第)”라고 하였다(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532&gunchalId=ev001&NodeId=&setid=447183). 또한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권26에 「복거산호(卜居山湖)」, 「우영산호(又詠山湖)」, 「입산호자호산옹(入湖山自號山翁)」의 시가 게재 되어 있어 그가 산호에 살면서 그곳의 자연을 노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532&gunchalId=av026&munchelId=01&finId=028&NodeId=&setid=460130&Pos=0&T)

otalCount=11&searchUrl=ok). 원주 산호(山湖)의 위치는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가 2000년 말에 원주시 학예연구사인 김성찬에 의해 임성주의 편지글 가운데서 ‘봉천구석(鳳川龜石)’이라는 구절을 찾아내고 ‘봉산동(鳳山洞)의 구석정(龜石亭)’으로 해석되었고, 그곳이 현재 원주시 봉산동의 당간지주가 있는 지역임을 알게 되었다. 2008년 11월 13일 원주시는 봉산동 새마을 공원에 ‘임윤지당 기념비’를 세웠다.¹⁵⁾

2) 단락은 임윤지당이 외로운 현재 입장을 밝혔다. 본문은 “저 임윤지당은 남편이 죽은 뒤에 친정집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시가에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또 형제 7인에 생존하고 있는 이는 둘째 오빠인 임성주(任聖周)와 막내 남동생인 임정주(任靖周) 및 본인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 뿐이니 각각 남동쪽에 살아서 그리워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예(禮)에 이르기를, (여자가 시집을 가면) 부모형제를 멀리 떠나는 것이나 정으로는 멀리할 수 없는 것이다. 형제가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나 모두 백발이 되었고 저들은 또한 병약한 체질로 병이 많아 건강하지 못했다(小弟以未亡之餘 親堂無怙恃 舅家無瞻依 且兄弟七人 而餘存者 仲氏與季弟及小弟而已 各處南東 無以爲懷 禮謂遠父母兄弟 而情不可遠矣 兄弟相戀 咸垂白髮而弟又殘質 多病無■(이하 결자 표시임)).”라고 하였다. 이 내용에 의거하면, 임윤지당은 남편이 죽고 친정집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시가에도 의지할 사람이 없음을 전제한다. 다만 형제 7인 중에 본인, 오빠 임성주, 남동생 임정주만 살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임윤지당이 말하고 있는 기간은 정조 6년(1782)부터 정조 10년(1786) 사이의 일이니, 살아 있었던 사람은 음영처리하고, 임윤지당의 부모와 직계가족, 시집의 가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15) 이영춘, 『조선 후기 원주의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 원주역사시리즈 8 (원주: 원주시청, 2013), 11-13.

<표 5> 임윤지당의 부모와 직계 및 시집 가족

父 임적(任適, 1685-1728) ----- 母 윤부(尹扶)의 女 1子 임명주(任命周, 1705-1757) 2子 임성주(任聖周, 1711-1788) 3子 임경주(任敬周, 1718-1745) 4자 임병주(任秉周, 出繼 叔父後) 5자 임정주(任靖周, 1727-1796) 1媾 원경여(元慶輿, 미상) 2媾 신광유(申光裕, 1722-1747) ---妻(任允攀堂, 1721-1793) 1子 신재준(申在峻, 1760-1787) (生父는 申光祐, 1726-1798)
--

3) 단락은 정조 6년(1782)에 임성주가 공주 녹문에서 원주의 산호로 옮겨 갔다. 이는 송서문 가운데 세 번째 단락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다. 본문은 “다행히 하늘의 도움을 받아 임인(壬寅: 정조 6, 1782)에 둘째 오빠인 임성주가 이곳으로 이주하여 늘그막에 서로 의지하니 여생이 지극히 즐겁다. 막내 남동생인 임정주 또한 여러 차례 원주에 와서 형제 3인이 서로 모여 함께 앉아서 즐겁게 이야기하였고 또한 옛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형제가 무고할 때를 추억하니 즐거운 가운데 슬픔이 일어나 마음이 매우 좋질 않았다(幸賴天佑 歲壬寅 仲氏移住于此 暮年相依 餘生至樂 季弟又數次來會 弟兄三人 相聚共坐 喜笑閑話 而且憶昔年奉侍慈闈 兄弟無故之時 樂中生悲 心焉隕缺).”라고 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임윤지당의 친정에서 생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른인 둘째 오빠 임성주와 그의 가족이 그들의 오랜 터전인 공주의 녹문을 떠나 여동생이 살고 있는 원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임정주가 공주에 살면서 임성주와 임윤지당이 있는 원주로 다녀가게 되고 삼형제가 원주에서 몇 번 회합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단락은 임성주의 기품과 학문을 묘사하였고, 5) 단락은 임성주를 형제의 정보다는 학문의 스승으로 받들고 존경함을 나타냈다. 본문의 묘사를 보면, “또 우리 제형을 생각하건대 둘째 오빠 임성주는 나보다 10살이 많은데 기품이 순후(純厚)하고 팔순이 가까운데도 천품을 타고나 질병이 별로 없어 덕은 더욱 높고

학문은 더욱 힘써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아까워하여 밤낮으로 학문에 힘써서 위무공이 95세에 억시를 지어 경계한 것이 훌륭하다고 하기도 부족하다(임성주가 매우 훌륭함을 위무공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 저는 형제간에 몹시 생각하는 정 뿐만 아니라 둘째 오빠의 거룩한 덕을 우러르고 사모하는 것이 마음에 간절하여 생각건대 지금부터 앞으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 남은 시간을 보낸다면 평생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큰 허물을 면하기를 바란다면 혹시라도 초목과 함께 아무 의미 없이 썩어버리지 않을 것인저 하면서 마음과 입으로 말한 것이 여러 번이다(又念我弟兄 ■■■■ 而 仲氏 長於我十年 稟氣純厚 八耋將近受■■■天 無甚疾病 德彌高而學彌力 惜寸陰之將移 孳孳日夕 衛武公之九十抑戒 有不足獨■焉者矣// 小弟非惟兄弟孔懷之情 而慕仰盛德者 切於中 意謂自今以往 源源受壽 以終餘日 則亦可以不負平生之志 而庶免大過 或有不與草木同腐者歟 心口相語者 累矣.)” 이 내용을 보면, 임윤지당은 임성주를 학문의 스승으로 바라보면서 그 기품이 순후(純厚)하고 학문은 위무공에 비견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임윤지당은 어려서 오빠 임성주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성리학의 이론도 임성주의 학설에 입각하여 발전시켰다. 후에 임성주가 죽자 그의 제문(祭文)도 지었다. 그녀의 사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오빠의 덕을 우러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학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드러내고 있다. 같은 입장이 있었던 그녀의 동생 운호 임정주는 『녹문선생문집부록(鹿門先生文集附錄)』에 실린 「행장(行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기품과 학문을 평가하였는데, “세상에서 녹문을 말하는 사람들은 단지 태어난 바탕이 고명하고, 학문이 정밀하고 깊으며 몸조리와 실천이 두텁고 독실한 것만을 알고, 만년에 화평과 엄격한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가며 인품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춘풍과 같은 화기에애한 가운데 절로 엄격한 의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충분히 공을 알았다고 하겠는가? 녹문은 벼슬살이를 즐겨하지 않았으나 혁혁하게 이름이 났다. 정치를 함에는 청렴함이 강직함(介)에 이르지 않고, 밝음이 새하얀 데(皜) 이르지 는 않았다. 오직 이치를 따르고 본분을 다하기를 힘쓰는 것은 한결같이 지성과 측달에 근본하였고 법도를 헤아려 처신하였으며 자세하게 사람을 구제(救濟)하였다. … 전후 도백이

된 사람들은 모두 녹문을 애중히 여겼고 혹 참으로 학문을 한다고 칭송하였다(世之論公者 徒見其生質之高明 問學之精深 操履之醇篤 而未悉乎晚年造詣之和嚴兩至 德宇渾成 藹然春風之中 自有斬釘截鐵底意 則又烏足以知公云乎哉 公居官不樂 赫赫聲 爲治清不至介 明不至皦 惟務循理盡分 一本於至誠惻怛 而長於籌度 濟以謹密 … 前後爲道伯者咸敬重之。或有眞學問之歎云。) ”라고 하였다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bookList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532&gunchaId=ev001&NodeId=&setid=447183). 운호 임정주의 평을 보면, 임성주는 인격이 고명(高明)하고 학문이 정심(精深)하여 화평과 엄격함을 함께 지녔다고 하였다. 벼슬살이는 오직 이치를 따르고 본분을 다하기를 힘써 ‘전후의 도백들이 녹문을 존경하고 중히 여겨 참학문을 한 사람이라고 칭송하였다’라는 표현을 하여 극찬하였다.

6) 단락은 운호 임정주가 형인 임성주를 녹문으로 모시고 가려는 것을 서술하였다. 본문은 “둘째 오빠가 객지에서 누추하게 지냄에 안자(顔子)의 누공(屢空)을 면하기 어렵고 또 막내 남동생이 둘째 형의 년 치가 높고 여기저기 옮겨 사는 것을 걱정하여 공주의 녹문으로 돌아가서 더불어 서로 의지하여 살고자 하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일의 형세인즉 그리하나 저는 어떻게 위안을 삼으며 남은 인생을 보낼는지요? 제 나이가 70에 가까우니 남은 날들이 어찌 많으리오. 이 이별이 장차 영결이 될 수 있는지라 말과 생각이 여기에 이르게 됨에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客寓陋巷 難免顔子之屢空 而且季弟以 仲氏年高棲屑 爲優 而欲還故地 與之相依 今茲還皈 事勢則然 而小弟 何慰以遺餘生乎 小弟 年迫七旬 餘日豈多 此別 將成永訣 言念及此 不覺胸塞而涕■也). ”라고 하였다. 이 글을 보면, 임성주가 고향 녹문을 떠나온 지 5년이 되어 동생 임정주가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권유하고 그에 임성주가 돌아가게 되니 임윤지당의 마음은 이번의 이별이 영결(永訣)이라 생각하여 가슴이 답답하여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임성주는 원주 산호에서 5년간 살다가 정조 10년(1786)에 고향 녹문으로 이사를 갔고, 3년 후인 정조 12년(1788)에 세상을 떠났으니 두 사람의 이별은

영결이 된 것이다. 임윤지당의 비통하고 슬픈 마음은 임성주가 죽은 다음에 그녀가 쓴 『제중씨녹문선생문(祭仲氏鹿門先生文)』에 잘 나타나 있다.

7) 단락은 임윤지당의 세 가지 소망을 밝혔다. 본문에 의하면 “비록 그러나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으니 미망인으로 70에 가까우니 또한 수(壽)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제가 만일 먼저 저 세상으로 가서 둘째 오빠의 몇 행의 문자를 얻어서 묘 앞에 놓을 수 있다면 저승에서라도 위로가 될 것이다. 전(傳)에 이르기를, ‘큰 덕은 반드시 그 지위를 얻고, 반드시 그 녹을 얻으며, 반드시 그 이름을 얻으며 반드시 그 수(오래 사는 것)를 얻는다.’ 라고 하였으니, 지위는 벼슬(爵)을 칭하는 것이니, 벼슬은 천작(天爵: 하늘에서 받는 벼슬이라는 뜻으로 존경받을만한 선척적인 덕행)보다 높은 것이 없다. 대개 천작이라는 것은 인의의 덕이니 우리 둘째 오빠는 진실로 이미 인의의 덕을 지니서 몸에 두셨다. 덕이 높고 명예가 따랐으나 세상은 이미 쇠하고 도학이 밝지 않아서 비록 지금에 그 도를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돕고 백성의 스승 노릇을 함에 누가 우리 둘째 오빠의 성덕을 모르겠는가! 이는 반드시 하늘이 우리 둘째 오빠로 하여금 고요한 곳에 조용히 거하게 하여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서 학문의 덕을 쌓음을 더욱 후하게 하여 앞의 성인들이 깨우치지 못한 것을 깨우치게 하여 후인의 귀감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이름이 만세에 없어지지 않으며 녹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멀리 떠나 이별하였으나 또한 이로써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다. 오직 원컨대 둘째 오빠와 막내 남동생이 백세가 되도록 오래살고 강녕하여 재앙이 없으시며 영원히 큰 복을 받으시고 이에 남산의 수와 송백처럼 무성함을 축원하며 절하고 서문을 바치노라(雖然 小弟切有所願者 未亡之幾七十 亦可謂壽 而且支難耳 小弟如其先歸 而獲仲氏數行文字 以表墓前 則可以慰幽盲矣 傳曰 大德者 必得其位 必得其祿 必得其名 必得其壽 位者 爵之稱也 爵莫尊於天爵 夫天爵者 仁義之德 吾 仲氏固已得之 而存諸已者也 德高而名隨 世既衰 而道學不明 雖未能行其道於當今 以輔世長民 熟不知吾仲氏之盛德哉 是必天使吾 仲氏 靜處閒居 庸玉成之 蓄之彌厚 而發前聖之所未發 以覺後人也 斯乃名不窮乎萬世 而祿在其中也 今雖遠別 亦可以此而慰我懷

惟願我 仲氏與季弟眉壽百歲 康寧無菑 永受祜福 茲祝以南山之壽 松柏之茂 拜獻以序。”라 하였다. 이 글을 참고하면, 그녀의 세 가지 소망은 첫째, 임윤지당이 오빠 임성주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묘전에 오빠의 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둘째, 인의의 덕을 지닌 임성주의 학문이 더욱 풍성해지고 높아져서 그 도가 후대의 귀감이 될 것을 바라는 것이며, 셋째, 임성주와 임정주가 오래 살고 강녕하여 재앙이 없으시며 영원히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소망 중에 첫 번째 소망은 임성주가 먼저 세상을 떠남에 따라 자신이 오빠에게 글을 받지 못하고 오빠의 영전에 제문을 지어 바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의 1)단락에서 7)단락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종합하면, 임윤지당은 임성주가 정조 6년(1782)부터 정조 10년(1786)까지 공주 녹문으로부터 원주의 산호(山湖)로 옮겨 살았던 내용을 골격으로 하여 오빠를 학문의 스승으로 사모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을 잘 나타냈으며, 마지막에는 세 가지 소원을 결론에 넣어 자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 결 론

임윤지당(任允摯堂)의 송서문(送序文) 『배송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은 조선조 후기의 영·정조의 여류 성리학자이다. 노은(老隱) 임적(任適, 1685-1728)의 딸로 경종 원년(1721)에 태어나 유가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 19세인 영조 15년(1739)에 원주의 명문가 선비 신광유(申光裕, 1722-1747)에게 시집가서 정조 17년(1793) 작고할 때까지 55년간 원협(原峽) 혹은 산호(山湖)라는 곳에 살았다. 임윤지당의 학문의 바탕은 조선조 후기 율곡계(栗谷系) 기호학과(畿湖學派)의 주기파(主氣派) 성리학에 두고 있다. 그녀의 실질적인 스승은 오빠인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이다. 그는 율곡계를 이은 기호학파인 송시열(宋時烈, 1607-1689), 권상하(權尙夏), 한원진(韓元

震, 1682-1750)으로 계승되는 주기파를 발전시켜 기일분수설(氣一分殊說)을 통해 이기(理氣)를 기일원론적(氣一元論的) 관념으로 통일함으로서 조선유학사상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임윤지당(任允摯堂)은 동생인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와 함께 임성주의 학설을 발전시켰으며, 이어 조카인 영서(穎西) 임노(任魯, 1755-1828) 및 그의 제자들인 송야(松野) 임익상(任翼常), 낙재(樂齋) 김병주(金炳周), 운초(雲樵) 심기택(沈起澤), 하은(河隱) 이동재(李東宰)가 있으며, 이광정(李光鼎)과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 1811-1876) 등이 녹문의 제자들이다. 임윤지당의 학문의 세계는 그녀의 문집인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2권 1책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2) 임윤지당의 「배송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는 둘째 오빠 임성주를 위해 쓴 송서문(送序文)으로 임윤지당의 새로운 문학적 형식이 탐토될 수 있는 글이며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에 수록되지 않았다. 이 필첩은 임윤지당 자필의 수고본이며 족자로 만들어져 권자본 형식으로 말아서 오동나무 상자에 들어 있다. 필첩 전체는 19줄인데 제목 1줄, 본문 18줄이다. 전체 글자 수는 제목 7자, 본문 585자이고, 빠진 글자가 7자이다. 둘째 오빠를 지칭하는 ‘중씨(仲氏)’, 어머니를 지칭하는 ‘친당(親堂)’, ‘자위(慈闈)’의 앞에는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공격(空格)을 두고 있다. 임윤지당의 송서문은 자신이 정서한 정서본(淨書本)이다. 이 글씨의 특징은 단아(端雅)하고 필법에 상응하여 쓰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며 여성의 글씨로 보기엔 기운이 넘치고 해정(楷正)하다. 전체적으로 세로형이 긴 글씨로 전형적인 안진경(顔眞卿)의 서체(書體)에 저수량(諸遂良)과 우세남(虞世南)의 서체와 비슷하며 가늘고 부드럽다. 서체는 대체로 당나라 해서(楷書) 중에서도 안진경, 저수량, 우세남체를 섭렵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혹 이체자, 변획의 줄임, 멋부림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글씨의 멋을 아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것이다. 여성글씨로는 공력과 필력이 대단하다.

3) 「배송중씨남귀서(拜送仲氏南歸序)」는 오빠 임성주를 보내면서 이별을 앞두고 송서문의 형식에 맞게 잘 쓰여진 글이며 내용전개상 7단락으로 나누었다. 1) 단락은 임성주가 호서에서 원주로 옮겨 산 지 5년이 되었음을 서술하였다. 임성주가

이 시기에 원주의 산호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글은 우선 임정주가 쓴 『녹문선생문집부록(鹿門先生文集附錄)』에 실린 『행장(行狀)』과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권26에 『복거산호(卜居山湖)』, 『우영산호(又詠山湖)』, 『입산호자호산옹(入湖山自號山翁)』의 시가 게재되어 있어 그가 산호에 살면서 그곳의 자연을 노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단락은 임윤지당이 외로운 현재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그녀는 남편이 죽고 친정집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시가에도 의지할 사람이 없음을 전제한다. 다만 형제 7인 중에 본인, 오빠 임성주, 남동생 임정주만 살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단락은 정조 6년(1782)에 임성주가 공주 녹문에서 원주의 산호로 옮겨 갔다. 이는 송서문 가운데 세 번째 단락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다. 임성주가 그의 가족과 함께 임윤지당이 사는 원주로 터전을 옮겨 살면서 형제이지만 학문의 제자로서 기쁘고 즐거운 조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조에서는 드문 사건임을 알 수 있다. 4) 단락은 임성주의 기품과 학문을 묘사하였고, 5) 단락은 임성주를 형제의 정보다 학문의 스승으로 받들고 존경함을 나타냈다. 6) 단락은 운호 임정주가 형인 임성주를 녹문으로 모시고 가려는 것을 서술하였다. 7) 단락은 임윤지당의 세 가지 소망을 밝혔다. 첫째, 임윤지당이 오빠 임성주보다 먼저 죽으면 묘전에 오빠의 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둘째, 임성주의 학문이 더욱 풍성해지고 높아져서 후대의 귀감이 될 것을 바라는 것이며, 셋째, 임성주와 임정주가 오랫동안 수를 누리기를 축원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소망 중에 첫 번째 소망은 임성주가 먼저 세상을 떠남에 따라 자신이 오빠에게 글을 받지 못하고 오빠의 영전에 제문을 지어 바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윤지당은 임성주가 정조 6년(1782)부터 정조 10년(1786)까지 공주 녹문으로부터 원주의 산호(山湖)로 옮겨 살았던 내용을 골격으로 하여 오빠를 학문의 스승으로 사모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을 잘 나타냈으며, 마지막에는 세 가지 소원을 결론에 넣어 자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구민정. “임윤지당고.” 『역사와 역사교육』 23(2012), 103-128.
- 김경미. “임윤지당평전: 여성의 발견, 임윤지당.” 『연보와 평전』 7(2012), 78-84.
- 김남이. “임윤지당의 한문 글쓰기 방식과 그 의미 - 조선후기 여성의 학문적 문학적 토양에 대한 고찰로서 -.” 『동양고전연구』 24(2006), 29-57.
- 김미란. “조선후기 여류문학의 실학적 특질 - 특히 18세기를 중심으로 -.” 『동방학지』 84(1994), 179-211.
- 김미영. “성리학에서 대두된 공적 영역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 임윤지당의 학문형성과정을 통하여 -.” 『철학연구』 25(2005), 390-415.
- 김보희. “서구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과 임윤지당(任允攀堂)의 철학사상 비교.” 『비교문학』 31(2003), 1-13.
- 김재임. “임윤지당의 성리론을 통해 본 인간학 구조.” 『강원문화연구』 26(2007), 173-188.
- 김 현. “성리학적 가치관의 확산과 여성.” 『민족문화연구』 41(2004), 455-488.
- 문희순. “호서지역 여성 한문학의 사적 전개.” 『한국한문학연구』 39(2007), 85-116.
- 박현숙. “임윤지당론.” 『여성문학연구』 9(2003), 131-156.
- 裴宗鎬. 『韓國儒學史』.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90.
- 서정화. “박제가의 제문 및 송서 연구.” 『어문논집』 51(2005), 155-178.
- 오영교. “조선시대 門中의 女性教育과 任允攀堂.” 『역사와 실학』 17·18(2000), 253-291.
- 유영희. “임윤지당의 철학사상.” 『한중인문학연구』 19(2006), 429-456.
- 이남희. “조선후기 지식인 여성의 생활세계와 사회의식 - 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을 중심으로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2(2012), 185-216.
- 이동재. “送別과 만남, 국가 행사의 宴會空間 濟川亭.” 『한문고전연구』 25(2012), 43-74.
- 이숙인. “조선시대 여성 지식의 성격과 그 구성원리 - 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 23(2005), 77-103.

이영춘. 『조선 후기 원주의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 원주역사시리즈 8. 원주: 원주 시청, 2013.

이영춘. “영정조대의 문예부흥과 임윤지당.” 『내일을 여는 역사』 3(2006), 142-154.

이영춘. “국역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해제(解題).” 『국역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원주시, 2001. 1-27.

이혜순. 『조선 후기 여성 지성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이혜순. “임윤지당의 정치담론 - 조선후기 여성지성사 서술의 일환으로 -.” 『한국한문학연구』 35(2004), 319-352.

任允摯堂, 조선시대사학회 역주. 『국역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원주시, 2001.

鄭炳連. “녹문 임성주의 생애와 그 학술 경향.” 『퇴계학보』 101권(1999), 75-134.

최연미. “임윤지당의 생애와 『윤지당유고』.” 『서지학연구』 17(1999), 291-313.

한국고전번역원(2013). 한국고전종합DB. [검색일자 2014. 2. 20.]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532&gunchaId=ev001&NodeId=&setid=447183

한국고전번역원(2013). 한국고전종합DB. [검색일자 2014. 2. 20.]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532&gunchaId=av026&munchaId=01&finId=028&NodeId=&setid=460130&Pos=0&TotalCount=11&searchUrl=ok

한국학중앙연구원(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자 2014. 2. 20.]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0502&ty=2>